

교회 목표

신앙인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자랑하나이다
(사 41:1)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2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헌 편집국장: 이항수

“수치, 전통, 그리고 전환” 2002년도 제2차 청지기훈련

6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매일 오후 7:30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구하게 되리니”(신 4:29).

‘수치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영혼의 참된 부흥은 반드시 전통을 겪은 후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자신이 수치스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기나긴 고통 뒤에 찾아오는 참된 기쁨을 깨닫는 사람, 그들만이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게 되리라. 주께 나오라!’

읽고 오묘한 말씀 / 금요예배 전제요약 2

구약성경

3) 이스라엘 봉사의 본질을 15:22~24을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네 언약의 세를 짓리라”

하나님께서 사나아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계명을 주셨다. 그 계명은 혼란스런 이스라엘을 향한 신의 본질이었고, 오직 여호와께만 충성하고 의존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할 약속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애굽이나 다른 민족의 문화, 심지어 자연에 의해 영향받거나 그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행하는 모든 것은 세상과는 관계없고 오직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며,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의 특성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실을 곧잘 잊어버려 왔다. 그들은 너무나 쉽게 우상숭배에 빠져들었으며(출 32:3~9), 애굽을 그리워했고(민 11:5~6), 가나안 정탐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에 빠지기도 했다(민 14:2~3). 그들은 몸만 자유였을 뿐, 영혼은 여전히 세속의 노예였다.

4) 가나안 침략소 1~11을 23~24을 “네 자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셨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할 ‘언약’, 즉 율법과 ‘땅’을 주셨다. 비록 광야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불신으로 약속의 땅을 취하는 일이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들이 비록 무기도 없고 훈련을 받은 경험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어리고 성은 무너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4. 약속과 율법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구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주제일 뿐 아니라, 예수와 신자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언약 계명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해: 신명기

신명기는 모세가 새로운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의 설교는 이미 ‘지배’ 안에서 받았던 계명에 대한 새로운 갱신으로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가장 먼저, 율법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성’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또한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신 30:11~14, 시 40:8, 12). 그러므로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뿐이다. 그리고 ‘예후’가 나타나서는 ‘제사 제도’는 율법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은혜의 방편이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율법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구약에서도 구원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하고 있다(창 15:6, 롬 4:3). 생각해 보라.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이 있기 전이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일이다. 또한, 믿음이 있다고 율법을 무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유대교 안에서 율법에 대한 이해의 변화(사 7~8을, 9~10을, 8을, 9~10을)

그렇다면 율법에 대해 해득된 신성을 가지게 된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그 배경은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자, 그들은 무리처럼 민족이 되어버렸다. 무기, 왕, 영토, 군사, 심지어 하나님의 이적도 없어져 버렸고 오직 율법만 남게 되었다. 사실, 율법 그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다. 단지, 율법에 대한 이

해와 관점이 달라진 것이었다. 율법이 이방민족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찾지 않고, 율법을 준수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왜곡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율법을 맡은 자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3)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였고(신 18:15),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을 선지자로 표현하셨다(막 6:4, 눅 13:33). 그리고 제자들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설명하셨다(행 3:22, 7:37). 이것은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언약된 메시아임을 증명한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으신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출 4:12, 렘 23:18),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른 선지자 이상으로 특별하게 대하셨다(출 34:29~30, 35, 민 12:6~7, 신 5:22, 26~27).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성은 사역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심한 것처럼(민 12:13) 예수께서도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셨으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출 32:13~14, 32, 신 9:26~27) 원수였던 우리를 화롭게 하셨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를 드리셨으며(가나안 입성에 대한 요청과 고난의 잔에 대한 기도), 모세가 그 운유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마음이 운유하고 겸손하셨다. 그리고 모세가 종의 삶을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히 종의 삶을 사셨다(사 53:7~8).

지나 수요일에 메시지

죄인을 영접하신 분(눅 15:1-2)

누가복음 15장에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문인인지 잘 기록되어 있다. 누가는 1절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온 자들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묘사했다. 이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거나 무엇을 먹어도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께 나아왔다.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관점

그곳에 있던 종교지도자들은 예수와 그를 찾아온 자들을 각각 ‘이 사람’과 ‘죄인’이라고 분류했다(2절). 종교지도자들의 평가는 환경과 신학적 입장에 있어서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에 흠을 든 종교인이라면 죄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었다. 구원을 말하되(막 15:31)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지만(막 27:63),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이었다.

그리스도 자신이 사람이 되셨다

종교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의 때에 여자에게서 나셨다(갈 4:4~5). 그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창 3:15),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으로 약속되신 분이셨다(사 7:14). 그는 죄인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려고 자기를 자취하 낚추셨으며 종의 형제를 가지셨으며(마 25:7), 진실로 그들과 슬픔과 눈물을 같이하신 분이셨다(사 53:3, 히 5:7). 그분의 체휼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삶을 누리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죄인들과 달랐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셨으나 우리와 달랐다. 그분은 천조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누셨으며(요 3:35~36), 오직 아버지와의 뜻을 행하셨으며(요 6:38~39), 아버지와 하나이셨다(요 10:29~30). 그분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시대(히 7:26~28).

그리스도는 항상 죄인을 찾으신 분

그리스도께서 종교와 지도자들과 다른 점 가운데 한 가지는 그분은 항상 죄인을 찾으셨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분이 마태 오산 묵시록에(눅 5:32, 19:10), 이 일에서 기쁨을 누리시기 때문(눅 15:7, 10, 24), 그분에게 나이는 죄인은 결코 내쫓기지 않을 것이므로(마 6:7),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죄인의 마음을 변함없이 두드리고 계신대(마 28:20).

Listen to Me (Isaiah 46:3~4)

*"Listen to Me, O house of Jacob, And all the remnant of the house of Israel,
You who have been borne by Me from birth, And have been carried from the womb;
Even to your old age I shall be the same, And even to your graying years
I shall bear you! I have done it, and I shall carry you; And I shall bear you and I shall deliver you"*

We hear so often from parents, friends, and even pastors the words "listen to me", but we really don't pay that much attention. In today's message God is calling out, "Listen to Me, O house of Jacob". In worldly terms, Jacob is nothing. He's a fool, a liar, and a cheater, but God is calling out for the house of Jacob to listen. This is the Christian doctrine—God calling to the sinners, the poor people to hear His Word. These small verses reveal the unchanging nature of God and the constancy of His kindness towards His people in His providence and grace. Let's really open our hearts to hear the Word of God.

We need scarcely prove the unchanging nature of God's dealings with His people during the short our seventy or eighty years. For example, the sun, moon, oceans, and rocks look the same as they did the day we were born. Moreover, we see through our life that God's Word and Gospel are still the same. Amen! More than two thousand years have passed since our Lord's ascension and our worship, praise, and communion with Him are still the same. Our Lord's dealings in His grace and providence always remains the same. Even the old saint's confessions and witness to the Lord remain the same.

We need to remember God's grace through our experiences in life. Think of the many joys and the peace that passes understanding which you've felt during the years of your life. These are proofs that God's love and your faith remain the same. Remember the many visits to the house of sickness and recollect how the Lord cheered its desolate chamber. Remember the many trials in its loss of friends and its changes of condition, but how in Jesus Christ He remained ever the same. Remember the many conflicts with temptation, doubt, Satan, the flesh, and the world, but remember how He covered its head in the day of battle. Remember God's grace through your spiritual experiences. People tend to forget. But our recollections testify to an unchanging God who is always faithful, true, and just.

We need to remember that the wonderful hope God has given us doesn't change as we grow older. Indeed, old age has fewer things to anticipate, but those few are the same as in younger days, for the covenant abides unaltered. The ground of our hope is still Jesus and not long service. The reason for our hope is still faith in the infallible Word. The preservation of our hope is in the same hands. The end of our hope is still the same heaven, not earthly things. The end of our hope is still the crown of life and blessedness. The joy of our hope is still as bright and cheering as before.

We need to remember that there is a great, truly great

conclusion that comes from our listening to God. As the body becomes more feeble, grace makes amends for the departed joys of youth, health, and activity. Your mind may grow weaker, your memory may be less retentive, your imagination may become less vivid, but the gracious doctrines become sweeter than ever. Their eternalness sustains the heart. As your body gets weaker, death is nearer, but heaven is nearer too! This earth may be less lovely but our sweet home country is dearer, since more loved ones have entered it and have left us few ties to earth. As old age sets in, preparation by examination is more imperative, but it is also more easy since repetition has removed its difficulties. Faith has more constancy, and tried promises offer richer comfort. Old age surely proves that God is the same.

We need to know that true blessedness comes from listening to God. The progression of time deprives us of certain enjoyments, but old age is enriched with others. It has a long experience in reading, proving the promise true. It has less to fear in the future of life, seeing the way is shorter. It has more divine unveilings of the heavenly elements. It has less business on earth and more in heaven, and hence it has an inducement to be more heavenly-minded. In old age divine love is made manifest as still the same.

Now we listen. Now we need to understand our wonderful duty. What are the proofs of divine faithfulness that cause men to bring forth fruit in old age? Foremost, is the testimony to the goodness of God, the unchangeableness of His love, and the certainty of His revelation. Then there is the conversion of others who are battling, assuring them that they will come out safely. Warning the wayward is a duty that has a potent force from an aged follower. And frequently we may give instruction, since the old man's experience has opened up many mysteries unknown before. Lessons to the young to make this God their God is a duty, since He will never forsake His people. Comfort to all is an obligation, since He still carries His children in His graceful arms. And lastly, a song for the aged about His undying love and unchanging mercy is a charge we must exercise.

Let us praise the One who calls us to listen. Let us remember His grace throughout our lives. Let us practice our duty in His love. My dear Choong Hyun friends, the Word of God sometimes appears to be small, even poor, like it comes from nothing, but oh how great are the spiritual blessings to those who listen. As we grow old in the Lord God, let us truly, wholeheartedly, and firmly listen to Him. **A**

내게 들을지어다 (사 46:3~4)



김성관 목사

“아름 집이어 이스라엘 집의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낮은 자를 부르심

우리는 자주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여러 목회자들로부터 “내 말을 들으십시오”라는 말을 듣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름의 집이어 나에게 들을지어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아람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는 어리석고, 거칠말쟁이며, 속이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들으라고 아람의 집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가난한 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복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구절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본성을 드러내며, 그분의 심리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지속적인 진정하심을 드러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합시다.

변함없는 주님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 평생 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변함없는 본성으로 그의 백성들을 다루신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한 예로써, 해와 달, 바다와 바위는 우리가 태어난 날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보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승천 이후로 2천년 이상이 지난지만, 그분을 향한 예배와 찬양,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 역시 여전히 동일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리 속에서 주님의 손길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향한 옛 성도의 고백과 증거까지도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난 날의 은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느꼈던 이해하지 못할 많은 기쁨들과 평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믿음이 동일하게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주께서 병실에 수 차례 찾아왔던 것을 기억해 보시고, 쓸쓸한 침실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격려하셨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친구를 잃고 상황이 변해버렸던 많은 시련들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시험과 의심과 마귀와 악재와 세상과의 많은 대립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전쟁의 날에 어떻게 여러분을 소중하게 감싸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화상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속되는 사실에 증명됩니다.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고 참되며 올바르십니다.

변함없는 하늘의 소망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소망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 소망은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과 관계없는 불변의 소망입니다. 참으로, 노년기에는 기대할 것이 거의 없지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인약으로 인하여 젊은 시절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여전히 예수이며, 지루한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을 위한 도리는 여전히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 역시 동일하게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절정은 여전히 하늘의 것과 동일한 것이며 세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소망의 끝은 여전히 생명과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기쁨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유쾌한 것입니다.

위대한 결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는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우리를 위대한 결말에 이르게 합니다. 유채는 시간이 흐를수록 연약해지지만, 은혜는 젊음, 건강, 그리고 활력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을 돌이켜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연약해질 갈 수 있습니다. 기억력도 점점 쇠퇴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력 역시 갈수록 생동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교훈은 그 모든 것들보다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영원한 마음을 마음을 지탱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약해질수록 죽음의 가까워지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천국도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사랑을 잃고 황폐해져가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달콤한 분향은 가까워집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분향에 들어갔으며, 천국에 대한 열망은 우리를 하여금 세상에 대한 애착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벗어버리게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따라,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천국을 준비하는 것은 보다 중요한 일이며, 또한 그것은 보다 쉬운 일입니다. 그러한 준비를 거듭할수록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로막는 것들은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더욱 불변성을 가지며, 성취되는 언약은 보다 풍성한 위로를 베풀어줍니다. 노년기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동일하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들음에서 생기는 은총

우리는 참된 은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빼앗지만, 노년기는 다른 것들로 운명하게 되어집니다. 언약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학식에는 오랜 경험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인생이 짧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미래의 삶에 대한 걱정이 적어지게 합니다. 또한 그 음성에는 더욱 더 신성하게 드러나는 하늘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의 일들을 축소시키고, 하늘에 속한 일들을 확대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더욱 신령한 마음을 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노년기에도 하늘에 속한 사람은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놀라운 임무

지금 우리는 듣습니다. 지금 우리는 놀라운 임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노년기에 열매를 맺게 하는 원인이 되는 신적인 신실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의 불변함,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확실성이 그 증거입니다. 제 멋대로 행하는 자들을 훈계해야 하는 것은 임무입니다. 노인에게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 훈계를 따르게 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 교훈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들의 경험은 전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신비들을 밝혀 드러냅니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훈계하는 것이 노인의 의무입니다. 그분은 결코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이들을 위로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자녀들을 은혜의 두 팔로 옮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년기에 하나님의 불멸의 사랑과 변함없는 자비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연습해야 합니다.

은혜의 삶으로의 초경

우리를 향해 내 음성을 들으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보잘 것 없고, 초라해 보이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들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 안에서 노인이 되어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도록 합시다. ■

우크라이나의 집시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조문주 (집사, 12교구 우크라이나 단기성교회)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우크라이나의 목격자인 르보프로 가는 도중 키예프에서 밤을 맞이하여 일박하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강 건너 쪽을 바라보니 거대한 연신상이 보이는데 치켜든 손에는 잘린 칼이 들려 있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칼잡이 정교회의 십자가보다 높았으므로 잘라내었다고 하였다. 시내의 곳곳에 전방이 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정교회의 예배당이 들어서 있었고, 그 예배당만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낙후되어 있는 다른 건물들과 달리 금박도장으로 번쩍거렸다. 이 곳의 영적인 상황이 심각한 상태라고 느껴졌다. 우리 팀은 이곳에서 어떻게 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하였다.

지금껏 공화이나 역동 공공장소에서는 정당한 군인들이 안내하면서 검문검색을 하는데, 여행자를 위한 배려는 거의 없었다. 그러한 분위기는 내지로 갈수록 더욱 심하게 느껴졌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외국인이 기차로 여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기차표를 구입하는 것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언어는 현지와 외에는 전혀 소통되지 않았으며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마음을 단단히 다졌다.

성교자인 르보프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약속한 현지 자원봉사자를 역에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지의 열악한 통신상황으로 최근 5일간 단 한번도 교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경우에는 조금도 당황할 것 없이 제2안으로 전환하기로 마음의 다짐을 하였다. 현지 안내인이 없다는 것은 생소한 문화환경에서 귀머거리, 방언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르보프로에 도착하니 역시 현지 안내인은 보이지 않

았다. 우리는 당황하지 않았으며, 정담대를 보내어 숙소와 안내인 등 필요한 정보를 구하였다.

거리의 보안요원들의 검문검색으로 전도활동이 자유롭지 않았다.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여 현지의 선교사역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르보프로에서 서남쪽으로 100 킬로미터 정도 내려가면 "우즈

고라드"라는 곳인데 전도활동이 자유로우며,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고 하였다. 우리 팀은 그 곳으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르보프로에서부터는 자원봉사자가 동행하였다. 류타라는 여성인데 성령이 충만하고 영어가 능통하였다.

우즈고라드에서는 '로마'와 '이라'라는 2명의 젊고 신실한 자원봉사자가 예비되어 있었다. 이들은 우리의 사역을 막을 아무런 방해도 없었다. 우리들은 집시 마을에서 마을로 다니며 말씀을 증거하였으며 주민들이 모이는 대로 전도집회를 실시하였다. 여자 팀원들은 찬양과 율동, 게임 등으로 어린이들에게 손쉽게 접근하였다. 수 차례의 노방전도와 전도집회를 실시하였다. 전도집회는 집시마을을 공터에서 하기도 하였고, 교회, 운동장, 병원, 초·중·고등학교, 고아원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언어가 다르지만 목사님이 한국어로 설교하면, 우리 팀원이 영어로 통역하고, 루다가 다시 우크라이나어로 삼각통역을 실시하였다. 우크라이나인들은 깊이 생각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방식이 오히려 말씀을 새겨들는데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우리 팀원들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으며, 현지인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다.

집시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사회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질병에 걸리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은 복음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 마음 속에는 구원과 구원을 대할 갈망이 있다. 집시 형제들을 위한 기도에도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

심자기
에서
3

우리는 서울 아경을 바라보던 외국인들이 빨갛게 빛나는 수많은 십자가의 불빛 때문에 매우 놀랐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도시 한 복판에 지어진 교회들, 철로변의 마을에 있는 교회들, 상가를 일회해서 단장한 교회들은 교회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걸려있다. 그것은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며, 교회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했다.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말했다. 왜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했는가? 그의 이유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과 선교 여행에서 십자가를 설교했다. 십자가 상에서 주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또한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나타난 최고의 비극적인 사건도 아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이며, 우리의 죄인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구속 행위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죄악이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알고 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 죽으신 이유는 그가 하늘로부터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다. 그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신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것도 죽으시기 위함이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아래 있던 자의 죄와 불명 당하기로 운명되어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29)라고 선포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의 아들의 머리 위에 얹어 그를 제책절하고 벌하셨고 죽음을 당케하신 것이다. 십자가 상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악을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죄의 무게와 죄값을 치루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저항도 하지 않고, 신음도, 불평도 하지 않으시며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하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며 우리를 용서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즉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복된 소식을 믿는 자는 똑같이 구원을 얻는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할 이유이다.

다음주에 계속 (이성욱 목사)

선교사 이야기

윌리엄 캐리(1761년~1834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그것을 제외하면 캐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 가난한 영국의 가정에서 태어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에 신학을 하였다. 하지만 그의 열망은 기쁨이나 안식이나 진리였다. 부양할 가족도 많았고 아내 또한 그를 이해해 주지 못했다. 하지만 그런 일상의 어려움이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뿔을 수 없었고 결국 그는 승리하여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다.

해의 선교가 비전하였던 18세기에 그는 '선교'라는 시각으로 성경을 보았고, 선교의 당위성을 책자로 펴내 사람들을 설득한 결과 최초로 영국에서 침례교 선교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그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793년 인도 선교를 떠났다. 인도 내륙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고 아내는 정신병자가 되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캐리는 자신이 왜 인도에 왔는지 그 이유를 결코 잊지 않았다. 1800년 말다를 떠나 세람포에 이주하게 되었다. 세람포는 곧 인도 침례교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캐리 역시 그의 남은 생애 34년을 이곳에서 보냈다. 캐리와 그의 동역자들인 조슈아 마쉬먼, 윌리엄 워드는 세람포의 3인이라고 불리는데, 그들은 선교역사상 가장 유명한 동역팀이 되었다. 그들은 초대교회처럼 모든 것을 공유했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캐리는 물질적인 희생을 감내하며 동역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존중과 사랑으로 모범이 되었다.

그는 1812년 대화제로 수년의 걸친 작업단 다국어 사전, 두 권의 문법책, 한역한 성경 원고를 잃어 깊은 좌절에 빠지기도 하였고,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변화된 선교분부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맞기도 하였다. 그 모든 것이 변화되고 흔들리고 낙담만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신실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흔들림 없었기에 주님께서 말기신 그 모든 달음질을 끝내고 1834년 인도에서 잠들 수 있었다.

(루스터의 선교사 집성 역사)

잘 그릇에 담긴 보배

김민철 (대학부 양육교사)

이야기 하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에서 "아빠~, 엄마~" 하고 떠돌아다니, 그럴정만 또랑또랑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갓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는 짧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계단을 한 칸씩 한 칸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예전 걷는 것도 험거운 일일 텐데, 연신 "아빠, 엄마"를 외치며 험한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둘. 몇 년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절그릇에 가졌어요" (고후 4:7상)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 하릴 절그릇일까? 하나님께서 줄터 신령을 쓰셔서 금그릇은 아니더라도 은그릇 정도라도 만들어 주시면 좋을 텐데'. 나를 절그릇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속에선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 자신이 절그릇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었죠.

그 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물건을 담은 그릇이 어떤 종류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라고 거기에 담긴 '그 보배'가 나에게 값지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배는 그릇이 값비싼 것이어서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것이 보배이기 때문에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 셋. 나는 절그릇처럼 연약한 그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내리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대견함과 흐뭇함이 그 짧은 아빠의 미소 속에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내려가기까지 버티고 있었던 아빠의 손과 그 아이에게 무한한 용기를 주었던 "아빠, 엄마"의 외침을 생각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내게 언제라도 손을 내밀시며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용기를 주는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해 나는 미소를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삶에 나타나신 예수님.

김수연 (대학부 6학년/새가족측)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난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어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큰 값을 치루고 나를 사셨기에,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연이는 내 딸이니라. 오늘날 내가 수연이를 낳았도다. 수연이는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기에 그 크신 사랑을 더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여!

주께 고향 없는 고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은혜 누리지 못하는 이들로 인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내게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마치고

나를, 영혼을 살리는 정결한 도구로 쓰시옵소서"

내가 비록 연약하여 실패와 낙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날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으로 기쁩니다. 주님은 내 삶에서 내 의지로 드러낼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저 주께 사로잡혀 주께서 내 삶에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내 삶 속에 소망하는 기쁨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작은 나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즐겁든지 슬프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늘 내 안에 계시기에, 주가 주신 기쁨 외에 더 기쁨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기쁨이십니다.

나에겐 6개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희주 (대학부 5학년/집장)



팀장으로 섬기기 시작한 것이 잊그저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는 많은 바람과 다짐이 있었다. '이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도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인지, 나의 욕심인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한 주 한 주 지내었다.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나의 다짐은 조금씩 식어졌다.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졌던 아이에게는 드문드문 연락하고, 온다고 약속했는데 나오지 않는 아이에게는 실망하고, 또 잘 나오는 아이들은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무관심했다. 그게 나였다.

그런 나였기에 '잃은 양 찾기의 날' 또한 내게 그리 특별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다. '한 동안 아무 연락 없다가 갑자기 다시 연락을 하라고?' 그 어색함을 또 느끼야 한단 말인가? 자신없었다. 같이 있다. 그리 기대되지도 않았다. 그래도 의무감에 수화기를 들었다. 그렇게 별 기대없이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누나 연락처를 까먹었어요. 가고 싶었는데, 어디서 몇 시에 하는지를 몰라서요. 죄송해요. 이번 주에 가면 되죠?"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요. 대학부 가고 싶었는데 아직은 좀 어려워요. 미안해요, 언니".

우리의 6개월은 이렇게 지났다. 게으른 우리의 6개월에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그런 지금, 이제 내가 저들을 위해 해줄 일은 지속적인 중보인 것 같다. 아쉬움과 미안함이 큰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조장과 조원으로서의 관계는 '6개월'로 한정되어 있지만, 그 관계의 참 주인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것을 믿으며, 또한 비록 '우리의 기간'에는 이루지 못한 게 있을지라도, 저들을 향한 나의 바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시간'에는 분명 이루실 것을 믿는다.

늘...란...우...신...주...의...이...름

7. 개척자

예수님을 '개척자'라고 부르는 곳이 성경에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예수님을 '개척자'로 표현하고 있다. 한글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0절과 12장 2절에서 예수님을 '주'로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각각 '창시자'란 의미의 'author'와 '이끄는 자'란 의미의 'captain'으로 번역했고 헬라어로는 개척자라는 의미의 '아르케고스'로 쓰여 있다.

그는 생명의 개척자이다. 시편 16:11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나니"라고 주님을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님 스스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개척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그는 구원의 개척자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언제나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장벽을 허물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개척하셨다. 예수님이 구원의 개척자이신 사실은 우리를 흥분하게 만드는 진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정적인 경험으로 생각한다. 구원을 도착했다거나 이르렀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나. 구원에 도착함으로 안도하며 끝났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구원은 주창장이 아니다. 구원은 발사대이다. 구원은 동적이다. 구원은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할 새로운 무엇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척을 의미한다. 우리의 구원경험은 정적이기 지루한가? 아니면 개척하며 신나게 나아가는가? 가만히 서 있거나 물러나는가? 새로운 땅을 향해 전진하는가? 구원의 개척자를 따르자. 그를 따를 때, 구원은 점점 신나는 것이 된다. 그는 회장을 통해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우리도 그의 땅을 받아 구원의 개척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구원의 개척자를 어떻게 따르는가? 주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어떻게 따를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가시므로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는 생명의 개척자로서 새로운 영생을 인도하신다. 그는 구원의 개척자로서 우리를 진보하며 전도하는 새로운 구원의 개척자로 만드신다. 개척자가 정착민이 되기는 매우 쉬우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개척자가 되어 도전하며 진보할길 원하신다.

구역장 영성훈련

비를 내리지 말라

3교구(정해성 목사, 김정자 전도사)



먼저 구역장들은 '비가 없는 구름' 같은 자신들의 모습을 고백했다. '예배는 하는데 은혜가 없다', '행사는 있는데 말씀이 없다', '말씀을 들어도 말

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등이 그 고백들이었다.

이어서 정해성 목사의 말씀이 있었다.

그렇다면 구역장들이 고백한 이러한 들도도들을 어떻게 극상품의 포도로 바꿀 수 있으며, 비가 없는 구름에서 어떻게 비가 내리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회개로 가능하다. 자신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 은혜의 비가 내린다. 우리는 회개보다는 요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돌이키는 자에게 있다. 지금 자신에게 은혜의 비가 없다면 스스로를 돌이켜 보라. 생활 속에 성령의 열매 대신 불만이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불만과 비판만 있고 은혜가 없는가? 자신을 돌아 보라.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은혜의 비를 맞고 어떤 사람은 비를 맞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모양, 즉 말씀을 듣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은혜의 비를 보아야 한다. 말씀을 성도에게 맞추는 성도. 성도가 말씀에 맞춰야 한다. 말씀 선교자가 성도 개개인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상처받는지 고려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부분에서 있어서 구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구역예배처럼 서로를 잘 아는 모임에서는 상처가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구역장들은 이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평화로울 때를 더욱 조심해야 한다. '다오디게야' 교회가 평화로운 중에 적당위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책망 받은 것을 보라. 평화로운 중에는 비의 소중함을 잊기 쉽다. 평화로울 때 더욱 힘써 회개해야 한다. 비를 갈망해야 한다. 지금 우리 3교구는 아주 평화롭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비를 갈망하여 회개하자. 회개는 목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또한 목사의 죄나 주변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은혜의 비가 온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이정희' 성도를 소개합니다



3남3녀 중에 차녀이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혼자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배 언니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 들으면서 그 언니를 신뢰하게 되었고 그 언니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출현교회는 건물이 크고 웅장하며 아름다웠고 교인들에게서 생동감을 느꼈습니다. 대예배 말씀은 어려우면서도 마음 속에 예수님의 영과의 교감이었고 내가 죄인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3부 예배 중 찬양대의 찬양가사 중에 "이해 못하니 그의 사랑 죄인들의 친구 예수"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기엔 부족하지만 정말 살아계신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새가족부에서 말씀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알아가는 것이 즐겁고 기억에 남습니다. 새가족부가 서로 알 기회가 너무 적다고 생각되며 좀더 활기찬 새가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속성 (새가족부 통신원)



[한국 교회사]

국권상실과 기독교의 수난

일제는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22일에 우리 정부를 위협하여 한일의정서를 체결했다. 일본은 그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 1905년 11월 17일, 우리나라에 보호조약 체결을 강요하고 우리의 주권을 빼앗았다. 이어서 그들은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켜(1907년) 국방력을 마비시키고, 이준 열사의 해이그 민사 사건의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고공을 폐위시켰다. 일제는 이와같은 일련의 침략 과정을 거쳐 1910년 8월에 합병이란 이름으로 한국을 강점하여 그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때부터 1945년까지 무려 35년간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았다.

한말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우리 민족은 의병의 구국 항전과 더불어 지식인의 애국 계몽 운동에 의하여 국권을 도로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합방을 전후 일제는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던 의병활동을 무력으로 진압했고 의병활동을 펼치던 독립운동가들은 결국 중국과 만주, 연해주, 미국 등지로 빠져나가 국외에서 활동을 모색했다. 1910년 합방 이후 일본총독부는 국내에 남아있는 항일무장세력과 비밀결사단을 색출하기 위해 강력한 탄압정책을 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최후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철저했다. 기독교는 일제의 통치 기간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였다. 특히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독립운동 혹은 민족운동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일제의 식민통치에 가장 방해가 되는 집단이었다. 일제는 한국기독교의 민족운동 혹은 독립운동 노력을 차단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결국 일제는 총독암살 음모를 이유로 각양각색에서 약 700명을 구속하였다. 이 중에 123명이 1912년 5월 일제에 의해 기소되었는데 기소된 이들은 온갖 고문을 받은 끝에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고, 1심에서 105명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이것이 일제의 한국 교회에 대한 최대의 박해사건이었던 '105인 사건'이다.

기독교가 105인 사건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기소자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데 있다. 기소자 123명 중 93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직접 연루된 선교사만도 24명이었다. 특히 일제는 이 사건을 통해 기독교와 민족운동을 말살시키려 했다.

이 사건은 선교사들에 의해 미국에 알려졌고, 공판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사실과 사건의 조악함이 드러났다. 또 피의자들의 의연한 진술에 당황한 재판부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 기소자 중 99명을 무죄로 석방하고 실형은 받은 사람들도 1915년 일왕 대관식 특사로 모두 석방했다.

윤영로 교수(한성대)는 "105인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한국교회는 선교사와 민족진영간의 불신과 괴리현상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기소된 기독교인들은 고문과정에서 용과 스테반을 떠올리며 오히려 신앙심을 연단할 수 있었고 더 높은 항일의식을 갖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216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이 찬송은 우드베리가 30세인 1849년에 작곡하였으며 작사자는 미상이다. 성결하기를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이다.

- 1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니 더럽고 완악하고 교만하여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마음을 깨끗케 하시고 다시는 세상의 것으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소서
- 2절: 아버지여 저를 순종하고 겸손하게 만드시오 마음을 멀리하고 평화를 사랑하여 헛되고 죄 많은 생각 더러운 일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 3절: 주님의 사랑이 줄과 같이 되어 우리를 매어서 위험한 곳에 빠지지 않는 곳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 4절: 예수님의 보혈로써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

이 곡은 2분음표가 한 마디에 3개가 있는 2분의 3박자다. 그러므로 4분음표는 반박자가 되므로 리듬형태가 4분음표 두개와 2분음표 두개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4분음표 두 개씩은 항상 연결하여 부드럽게(거칠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불러야 한다. 그래야 그 다음 마디 첫째 박자의 2분음표가 강박으로 커지게 되며 노래의 형태가 자연스러워지고 또한 가사도 잘 전달된다. (찬양원전)

문훈구 장로(남66세) 위에 출혈이 있었었다. 위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8교구 김경의 집사(여55세) 담낭암, 간암으로 배에 가스가 차고 호흡이 곤란합니다. 믿음으로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2교구 박영신 권사(여73세)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교구 박재영(남 초등학교 5학년) 지난 달 26일 주일 예배 후 집에 오다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에 피가 고여 있습니다. 머리 속이 깨끗해져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진성 성도(남74세) 위암 3기로 수술을 시도했지만 중단되었습니다. 초신자인데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세례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관심이라는 더러운 영

김성경 (전도사, 중동2부)

무관심의 세대이다. 요즘 아이들은 주변에 무관심하다. 예배에도 성경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관심이 없다. 광고시간에 누가 생일을 맞아서 축하를 받는지, 누가 새 친구인지 관심이 없다. 아마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무 비판적인가?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다.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싶지는 않다.

사람들이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나'와 '내 일' 뿐이다. 밖에 나가면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그냥 그러려니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교회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도 요즘 무서울 정도로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오직 내 일에 대해서만 생각할 뿐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아니, 남의 일에만 무관심한 것을 넘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다. 옆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무슨 기도제목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나도 때때로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관심이 있는 척 말은 잘 한다. 하지만 그저 바랍소리일 뿐이다. 오직 '나' 안에만 갇혀서 나와 내 말은 일에만 관심을 쏟을 뿐 '나'라는 테두리 밖에 대해서는 그저 무관심하다.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무덤 가의 귀신들린 자를 보면 우리는 더러운 영이 죄운 자에 대한 여러 가지 면들을 알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기폐쇄성이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 갇혀 돌아다니며 남들과는 상관하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다가가 오시자 그 광인 안에 있던 더러운 영들이 외쳤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막 5:7). 더러운 영들은 예수와는 더욱 상관하지 않으려 했다.

"무관심이라는 더러운 영"을 퍼뜨린 것이 혹, 나는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하겠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성도에게 관심이란 당연히 해야 할 임무가 아닐까? 예수가 더러운 영에게조차 관심을 주셨듯이 우리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아야겠다. 그래서 그 관심이 전염병처럼 번져 나가길 기도해 본다.

중심으로 하는 찬양

이은경 (중동2부 지휘자)



지난 초겨울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게 했던 음악회가 서울 한 복판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웨덴인 인레나 마리아 클링베의 찬양의 밤이었습니다. 그녀가 부른 "Don't hide your Love"라는 찬양에 있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창조하셨는지 보이나요, 여러분. 아름다운 빛을 숨기려하지 말고 모두에게 비추세요"라는 노래말은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있던 나의 신앙에 새로운 불꽃을 피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노래말이 아름답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욱 내 신앙에 자극을 준 것은 레나 마리아는 태어난 때부터 양팔과 왼쪽다리가 없는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세계보다 외모에 목숨을 걸만큼 신경을 쓰는 속물적 경향을 갖기 쉽습니다만 오히려 그녀는 처절한 여건을 감사함으로 바꾸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당당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신체기능은 오른팔뿐입니다. 부모님이 그녀의 신체 장애로 행여나 상처를 받을까 염려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워낙 낙천적이며 활발한 성격이었던 그녀는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준 모든 사람에 대하여는 늘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내 상황이 나쁘니까 힘들 때는 찬양이 안 나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확신이 됩니다. 마음씨가 찬양이 주는 기쁨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이상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학교에서】

참사랑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공허한 자신의 영혼을 사랑 속에서 발견하려 합니다. 그래서 쉽게 사랑을 하고, 또 쉽게 헤어집니다. 그리고 참사랑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제로써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요일 4:10, 요 13:1, 롬 5:8). 이것뿐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도, 기쁨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참 사랑을 찾으려 해도 정작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참 사랑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5장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강도를 만난 자의 아픔을 보고도 피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면하는 세사위와 제사장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나도 이웃의 아픔을 보고 피하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법도 내 노력이지 않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여 함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바울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속에 부은 바 되었도다"(롬 5:5).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용서를 알게 되고 비로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마음 속에 새겨 봅니다. (권한임 기자)

성경의 생동

말라기(Malachi)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말라기'를 읽으실 때에는 그의 표현이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10의 '하늘 문을 열고'라는 표현은 창세기 7:11, 열왕기하 7:2, 그리고 시편 78:23의 표현과 같고, 말라기 3:17의 '특별한 소우'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19:5를 연상하게 합니다(출 8:22, 9:4, 6, 26; 11:7; 12:13). 그리고 '말라기'는 마지막 날, 즉 만민의 여호와와의 날에 대해 실재적으로 피부파에 닿는 아주 생동감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표현이(말 4:1, 3), 회복에 대한 표현들(말 4:2, 사 35:6; 60:1, 19-20, 시 27:1; 118:27) 모두가 경험했던 일상의 것들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말라기'는 대하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즉, '말라기'는 3단계의 대하 형태로 표현되는데, 1단계는 하나님의 '확정', 2단계는 하나님의 확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3단계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의 '반박'이라는 양식으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기 3:8을 보면, 확정은 '너희가 나의 고를 도적질하는 도다'(3:8), 질문은 '이제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3:8), 그리고 반박은 '십일조와 헌물이다'라는 식입니다. 이것을 '교훈적 변증법' 또는 '대화체'라고 합니다(1:25-27; 2:17; 3:7-8에 동일한 표현 양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라기'! 그리고 '노헤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말라기'! 그의 선포는 '노헤미야'가 직면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책망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생활에서 벗어나 성전을 재건하였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으나, 그러나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예호와 예물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그들을 향하여 심각한 경고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도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 4:6). 다른 선지자들처럼 용서와 회복에 대한 결론을 맺지 않았던 '말라기'의 선포! 어쩌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와 회복에 대한 대답을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김동현 목사 (출판국 지도)

2002

루디아 조인옥(17)

2 김선아 19

다.

구분		시 간	참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제외)	본 당
	IV	오후 1:00(외국 동시통역 제외)	본 당
	V	오후 3:00 (본문어가 드리는 제대)	본 당
찬 일 예 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1 오전 11:00 2 오후 7:30	본 당
금 요 집 회		오후 7:30	본 당
새벽 기도 회		오전 5:00	본 당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 출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단기선교사 강기엽 (소리랑키)